

이야기 2 : 다윗과 골리앗

주제말씀
[사무엘상 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게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에요. 다윗은 목동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늘 수금을 켜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다윗은 수금을 잘 연주하는 찬양대장이라는 소문이 났어요. 또 다윗은 기도도 열심히 하는 기도대장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다윗이 양을 칠 때 양들을 잡아먹으려는 사자나 곰이 자주 나타났어요. 하지만 무서운 사자나 곰을 상대하기에 다윗은 너무 어리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만일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그들에게서 양들을 지키려고 다윗은 물매를 던져서 못된 동물들을 잡는 연습을 했어요. 다윗이 물매를 돌려 돌을 날리면 백발백중 사자나 곰에게 맞아 입에 물었던 어린양을 버리고 울면서 도망을 갔어요.

어느 날, 이스라엘 나라는 블레셋과 큰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전쟁터에 나갔던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다윗은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는냐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사울왕에게 전했어요. 사울왕은 다윗을 궁으로 불렀어요. 사울왕은 다윗과 이야기를 나눈 후 전쟁에 나가는 것을 허락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들과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었어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양을 칠 때 곰과 사자를 쫓으려고 사용했던 막대기랑 물매와 돌멩이 다섯 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자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큰 소리로 비웃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겁나지 않았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물매를 이용해 돌을 골리앗의 이마에 던졌어요.

거인 골리앗은 갑자기 날아오는 물 맷돌을 이마에 맞고 기절해서 땅에 쓰러졌어요.

칼이 없었던 다윗은 골리앗에게 다가가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렸어요.



그 장면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크게 무서워하며 모두 도망쳐버려 그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하게 되었어요.
다윗은 양을 치며 무서운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사자나 곰을 무찔렀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골리앗과 같은 거인 장수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위대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다음 성경구절을 따라쓰고, 암송해 보세요 (사무엘상 17:45)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활동 1.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닿으려면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할까요?



활동 2.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아래 그림을 색칠해 보세요.

